

세상에 감동을

배리 래신 RI차기회장, 2018 국제협의회에서 2018-19 테마 발표
장세호 차기총재 참석, 일주일간 교육 수료



배리 래신 RI 차기 회장이 1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개막된 RI국제협의회에서 전 세계 차기 총재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과 세상에 영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될 것을 촉구하며 2018-19년도 테마 ‘세상에 감동을’을 공개했다.

바하마의 이스트 나소우RC 소속인 배리 래신 차기 회장은 “차기 총재들이 클럽과 로타리안들에게 좀 더 위대한 것을 열망하는 영감을 일깨우기를 희망한다”며 “로타리안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 나 한 사람의 생애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하는 동력을 부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로타리가 회원을 기반으로 한 단체라고 전제하며 “우리가 봉사를 원



하고 목표 달성을 원한다면, 먼저 회원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리 래신 차기 회장은 차기 총재들에게 “클럽 회장과 지구 내 로타리안들이 변화를 열망하도록, 더 많은 것을 행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영감을 일깨워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스스로 진전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 동안 로타리는 봉사 프로젝트에 있어 지속가능성 요소를 강조해왔다. 배리 래신 차기 회장은 “이제 로타리안들이 공해와 환경 오염, 기후 변화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가질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바하마 영토의 80%가 해수면 1m 정도의 높이에 해당되며, 2100년에 이르면 해수면이 2m 정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50년 안에 바하마

BE THE INSPIRATION



지난 1월 14일~20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2018 RI 국제협의회에 참석한 장세호 차기총재

는 캐리비안에 있는 대다수 섬나라나 해안도시, 그리고 전 세계 저지대 지역들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 이 라고 말했다.

끝으로 래신 차기 회장은 로타리의 모든 봉사를 보다 큰 글로벌 시스템의 일환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차기 총재들이 클럽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지금, 여기뿐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세대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이번 2018 RI국제협의회에는 우리 지구에서는 장세호 차기총재가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이동건 전RI회장과 윤영 석 로타리재단 이사, 윤상구 전RI이사가 참석했다.

우리 지구 장세호 차기총재를 비롯한 한국로타리 19개 지구 차기 총재들과 배우자들은 국제협의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분야의 연설과 프레젠테이션, 원탁회의,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지구 회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세상을 변화시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RI 국제협의회는 RI임원, 차기총재, 그리고 RI이사회가 참석하는 연례 회합으로서 매년 1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며 전세계 539명의 차기총재들에게 로타리에 관해 교육하고 지구운영과 관련된 지침들을 전달하는 회합이다.